

# 안보현·이도현·위하준...OTT 타고 폭풍성장

신예들 단박에 주연 대열에 합류 차기작 확정 짓고 중흥무진 활약 '새 장르물 새 얼굴' 캐스팅 대세 드높은 인기 해외로도 뻗어나가 새 한류스타 탄생 기대감 높여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스타 등용문으로 떠올랐다. '마이네임' '오징어게임' 등 파격적이고 과감한 소재를 그리는 오리지널 시리즈에 신예들을 전면내세우며 인기를 모은 덕분이다. 올해 안보현, 이도현, 위하준 등이 OTT를 발판삼아 주연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의 인기는 해외로도 뻗어나가 새로운 한류스타의 탄생 기대하게 한다. 흐름을 따라 다양한 무대의 제작진은 낯설지만 신선한 매력에 돋보이는 신인 연기자들이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내년까지 주연작 봇물

안보현은 올해 OTT로 '대세'가 됐다. 티빙 '유미의 세포들', 넷플릭스 '마이네임' 등 주연작을 잇따라 내내 호평을 이끌어냈다. '유미의 세포들'로는 허당기 있는 평범한 회사를 연기하며 현실적인 로맨스 이야기를 그렸다. 누아르 장르의 '마이네임'에는 경찰로 등장해 거친 액션을 선보였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한 이력을 살려 내년 tvN '군검사 도베르만', '유미의 세포들' 시즌2 등에서 주연한다. 지난해 JTBC '이태원 클라쓰'에 이어 올해까지 화제작에 연이여 출연하면서 해외 팬덤도 확 늘었다. 최근 일본 출판사 고단사가 펴낸 '한국 라이징 스타 사진집'에 김명수, 송강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도현과 위하준은 각각 지난해 12월 넷플릭스 '스위트홈'과 올해 9월 '오징어게임'을 통해 주연으로 발돋움했다. 이도현은 올해 KBS 2TV '오월의 청춘', tvN '멜랑콜리아' 등을 내놓은 데 이어 내년 송해교와 김은숙 작가가 무치는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의 주연 자리를 꿰찼다. 위하준은 현재 방영 중인 tvN '베드 앤 크레이지'에 나서고 있다. 차기작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웨이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의 이학주, 티빙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의 채종협 등도 OTT를 통해 새롭게 이름을 알렸다.



연기자 안보현, 이도현, 위하준(왼쪽부터)이 올해 티빙, 넷플릭스 등 OTT 열풍을 타고 안방극장 주연 대열에 합류했다.



사진제공 | 티빙, tvN



●"OTT로 기회 많아져" 이런 흐름에 대해 23일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각 방송사 드라마는 시청률과 직결되는 스타 캐스팅을 중시하는 등 기존 성공 방식을 따르지만, OTT는 장르물 등 새로운 콘셉트에 맞는 캐스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OTT의 주 이용자인 젊은 층의 공감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각 제작사는 이전보다 신인 연기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콘텐츠 소재에 따라 1~2년차 신인을 주연 후보로 떠올리는 제작진이 많다"면서 "이전보다 신인 캐스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OTT로 기회 많아져"

이런 흐름에 대해 23일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각 방송사 드라마는 시청률과 직결되는 스타 캐스팅을 중시하는 등 기존 성공 방식을 따르지만, OTT는 장르물 등 새로운 콘셉트에 맞는 캐스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OTT의 주 이용자인 젊은 층의 공감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각 제작사는 이전보다 신인 연기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콘텐츠 소재에 따라 1~2년차 신인을 주연 후보로 떠올리는 제작진이 많다"면서 "이전보다 신인 캐스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오징어' 효과... "유럽의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 2년새 2배로"

주요 지역 10월 시청 패턴 분석 "2030년까지 시청 절반 넘길 것"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인기로 힘입어 향후 유럽 지역의 주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청 규모의 절반 이상이 비영어권 콘텐츠에 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미국 대중문화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2030년까지 유럽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의 시청 시간 절반 이상이 비영어권 콘텐츠에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디

지탈 분석회사 디지털-i의 보고서를 인용한 데드라인은 "2021년 10월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 시간이 22%로, 2년 전 10%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디지털-i는 최근 새로운 스트리밍 측정시스템을 통해 유럽 주요 지역의 OTT 시청 패턴을 분석했다.

또 넷플릭스의 경우 비영어 콘텐츠 비중이 2년 전 25%에서 31%로 늘어났다. 아마존 프라임의 시청 시간 역시 16%보다 두 배 이상, 콘텐츠 비중은 19%에서 25%로 나란히 증가했다.

데드라인과 디지털-i는 이를 '오징어게임 효과'로 보았다. 여기에 넷플릭스의 프

랑스 시리즈 '뤼팽'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이 9월17일 전 세계 공개 이후 1억1100만 가구가 봤다고 10월 중순 밝혔다. '뤼팽'도 7600만 가구를 확보하며 비영어권 콘텐츠의 힘을 과시했다. 앞서 지난해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 이후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한 미국과 유럽 등 영어권 지역의 관심이 크게 일기 시작했다.

데드라인은 이는 "미국과 영국 제작사들의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절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할리우드를 비롯한 영어권 제작강국들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우위를 잃기 시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넷플릭스

할 수 있다"는 디지털-i 보고를 전했다. 한편 '오징어게임'의 정호연이 미국 대중문화 전문지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올해 급부상한 국제적 스타'(Variety's International Breakout Stars)로 꼽혔다. 모두 11명이 뽑힌 가운데 마블스튜디오의 '이터널스'에서 주연한 마동석도 이름을 올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심혈관질환 환자 중 돌연사가 80~90%를 차지!

## 연평균 3만여 명이 겪는 심정지! 돌연사 막는 생명팔찌가 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발병 후 4분 내의 24시간 지니고 있어야 응급상황에 사용 가능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쌓여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질병 사망원인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질병으로 발병률이 년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3만여 명이 겪고 있지만 생존율은 고작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부터 심정지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4분이 채 되지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뇌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4분을 넘기면 목숨을 건져도 뇌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따라서 병원에서 심혈관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하고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보관하는 곳은 자석의 형태로 되어있어 위급시 손쉽게 열 수 있다. 또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어 샤워나 목욕시에도 차고 생활할 수 있다. 환관질환 환자중 돌연사가 80~90%를 차지하므로 전조증상이 올 때 빠르게 꺼내어 사용이 가능한 에노라이프 팔찌는 골든타임 내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 장식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에노라이프 팔찌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 (건강정보) 생명을 살리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뭐길래?

니트로글리세린은 노벨이 발명한 화약의 소재로 심취 시 순간적으로 일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혈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시 다이아몬드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 맛이 달달한 니트로글리세린을 수시로 먹곤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를 먹으면 협심증 환자들에게서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구가 시작되었다.

약사들이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키는 신약 개발에 나섰다. 당시 미국심장학회에 일산화질소에 대한 발견을 심혈관계 의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서 녹여서 점막으로 흡수 후 전신으로 신속히 작용하도록 설계된 설하제이다. 심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전에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시켜 위급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문제는 제품이 3mm로 작아 보관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들이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키는 신약 개발에 나섰다. 당시 미국심장학회에 일산화질소에 대한 발견을 심혈관계 의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서 녹여서 점막으로 흡수 후 전신으로 신속히 작용하도록 설계된 설하제이다. 심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전에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시켜 위급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문제는 제품이 3mm로 작아 보관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팔찌하나 찼을 뿐인데 든든해서 좋구나!”**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에노라이프 팔찌는 꼭 필요한 상비품이며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40% 특가 행사중!**

본 이벤트는 300명에 한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이며 소진 시 예고없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급 패키지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CRYSTALS SWAROVSKI 1500가우스 자계 발생

상담 및 구매문의 **1670-5465**